

일주문



제5회 모악축제 열어
도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
북지부장 스님은 20일 금산사
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청송 오법감호소 위로
청산 영주 고경사 주지는 7
일 경북 청송감호소의 가족이
없는 오법감호자들을 찾아 위
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방송 임직원 연수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은
12-13일 양평 남한강연수원
에서 임직원 1백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했다.



백골관인 상 시상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
육관에서 제4회 '자랑스런 박
물관인 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산불교회관 개관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24
일 오전 11시 종로구 수송동
동산불교회관 개관식을 거행
한다. (02732-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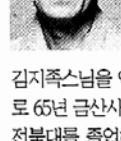
대불청 사무실 이전 개원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은
수송동 수성빌딩 1층으로 사무
실을 이전 하고 17일 개원회를
가졌다. (02738-3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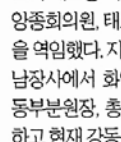
교육부 장관상 받아
이종희 진각종 탐주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 발전에 헌신
한 공로가 인정돼 15일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태고종 포교원장 자월 스님
태고종 총
무원장 해초
스님은 포교
원장에 윤자
월스님(원쪽),
연수원장에
김지족스님을 임명했다. 자월스님은 1944년 생으로 65년 금산사에서 현수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태고종 사회부장, 총무부장, 태고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태고회 이사,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지족스님은 1937년 생으로 54년 상주 남장사에서 화엄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태고종 동부본원장, 총무원 사정부장 사회부장등을 역임하고 현재 강동구 대흥사 주지로 있다.



신부님 목탁치고 스님 염불
15일 미 대사관 앞
에서는 이색 시위가 벌어졌
다. 불평등한 한미간 주
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과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정책(MD)을
규탄하는 '나홀로 시위
릴레이'에 진관스님이
염불을 외우고, 스님으로
부터 목탁치는 법을 배운
문규현 신부님 목탁을 치
는 장면에 연출된 것.
두 성직자는 이어 제
20차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해 양민학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성지순례 법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에 핀 꽃 친견순례)
경진년(경진년) 설날 보름날 오후(밤)12시 가장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등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낮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백처럼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공공양을 올려야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로살님 한단부분에 개공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서,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공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공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차오르며 발견하게 되었다. 개공불사를 추진해야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회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상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둔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삼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니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함창



삼사순례 아미타불성지 부처님 꽃친 운봉산 백운사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운사 TEL 051-542-4630

“참나 알면 모든게 자유롭다”
대행스님 동국대 정각원 초청 법문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이 18일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 스님)의
고승초청법회에 법사로 참석, ‘죽어야 나를 보리라’는 주제로 법문
했다(사진).
평소 정각원 법당에서 법회를 여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1천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강당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정각원장
법산 스님,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 교수·교직원·학생 등이 대거 참
석해 중강당 북쪽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법회에서 대행 스님은 먼저 ‘불교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가’ 등 불자들이 흔히 질문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법
문을 시작했다.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법회에서 스님은 자기의 주인
공을 찾는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자주 당부했다. 스님은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은 우주로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자 불성이다. 여러분
의 마음 속에 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행정진하면 모든 것
이 자유롭다. 그러니 주인공에 맡겨야 한다”며 우주와 생명의 근본
인 참나를 깨달음으로써 생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스님은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가’라는 민태진(화학) 교수의 질문에, “부처님 법으로는 모두 다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묘법이다”고 말했다.
지난 93년부터 매달 실시해 오고 있는 정각원 고승초청법회는 동
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스님들이
한번이상 법문을 했을 정도로 고승법회 중심시대로 알려져 있다.
이 법회에서 비구니 스님이 법문한 것은 대행스님이 처음이다.
김중근 기자 gamma@buddhania.com



“스님 뜻 기려 교육사업 힘쓸터”
청담 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스님
청담 장
학 문화 재
단이 지난
4월 초 교
육 인적 자
원 부 산 하
재단 법인
으로 발족
했다. 초대
이사는 전
도선사 전
주지 동광
스님(중주
자해방생원
원장)이 맡
았다.
동광스님
은 “청담스
님의 뜻을 받
들어 교육, 포
교, 사상 재
조명 사업
을 목적사업
으로 진행해
가겠다”며 “이
른 시일 안에
재단의 기금
을 현재의
5억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일에 문
도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담스님 탄신 100년을 맞는
올 10월(또는 11월 초) 기념음악회
를 열고 청담스님 관련 논문집도 펴
낼 계획이다.
청담문화재단은 △청소년 대상의
장학사업과 불교문화 수련회 △출
판물 통한 포교 활동 △청담문도회
소속 스님들의 교육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청담불교사상연구회
과 기념관 설립도 추진한다. 청담문
화재단에는 해성·현성·법화·묘
엄 스님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vung@buddhania.com

신부님 목탁치고 스님 염불
15일 미 대사관 앞
에서는 이색 시위가 벌어졌
다. 불평등한 한미간 주
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과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정책(MD)을
규탄하는 '나홀로 시위
릴레이'에 진관스님이
염불을 외우고, 스님으로
부터 목탁치는 법을 배운
문규현 신부님 목탁을 치
는 장면에 연출된 것.
두 성직자는 이어 제
20차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해 양민학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지역불자 교육도량 목표”
인천불교회관 건립 나선
일지스님
“불교세가 미약한 인천지역 불
교의 활성화를 위해 기쁜 마음으
로 나섰습니다.”
인천 전법도량 지정 이후 4년간
끌어온 인천불교회관 건립 원력을
세우고 14일 포교원에 사제 4억원과 불교회관 설계도를 제
출한 일지스님(50·부평 마하연포교원 주지).
스님은 “93년부터 동인천 능인사와 부평 마하연포교원에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며, 지역불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인천
불교회관의 건립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재정
적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교회관 건립불
사에 나서는 스님은 “먼저 불교회관 신행단체 사무실, 대
법당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불교회관을 완공한 뒤 두
층을 더 올려 어린이집과 불자예식장도 건립하겠다”고 설명
했다. 일지스님은 79년 강진 육련사에서 경선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87년 운문사 승가대학 93년 중앙승가대 95년 동
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원우 기자 wkkim@buddhania.com

“지역 첫 불교 어린이집 세웠으면”
강진불교신도회 방철수 회장
“2002년까지 강진 최초의 어린이집과 불교
회관 건립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12일 전라 강진불교신도회 제3대 회장에 선
임된 방철수(47·강진불교대 운영위원장) 해
강전력 대표는 “강진군내에 기독교에서 운영
하는 20여 어린이집이 있지만 불교계는 한 곳도 없다”면서 “새책 불
자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불교 포교를 위해 불교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nia.com

법성종 덕암 초대 총무원장 취임식
대한불교 법성종 초대 총무원장 덕암스님의 취임식이 15일 서
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하순봉 한나라당부총재 등 5백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덕암스님
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의 기반을 튼튼히 해 불교중흥에 이바지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성종
은 전국에 110여개 사암을 두고 있으며 지난 99년 창종했다.
김중근 기자 gamma@buddhania.com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상량식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 신축 법당 상량식이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스님 등 종단 스님, 다나젠소스님(인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
사장) 등 일본불교 지도자 스님들, 총종총무원장 남정스님, 신도
동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6일 봉행됐다. 연건형 450평
지상 3층으로 세워지는 새 법당 묘각사는 6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gamma@buddhania.com

범주스님, 노숙자 후원금 1천만원 전달
범주스님(달마선원장)은 15일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 사회국장
헤림스님에게 노숙자를 위한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
원금은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연 범주스님
사예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이다. 범주스님은 노숙자들에게 조
금이나마 경제적인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ma@buddhania.com

Advertisement for '선무도여름수련회' (Sunmudo Summer Training Camp) and '순달삼사순례는 아미타불이 깨신곳으로' (Sun-dal Sam-sa Pilgrimage is the place where Amida Buddha awakened). Includes details about dates,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olgusa and Sunmudo.